

News

여당, "집값 90% 대출"…비상결린 금융권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에 한해 LTV를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금융당국은 전세계적으로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곳 없으며 신용론 건지. 은행에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시키고, 전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

17일부터 모든 금융권 '非주담대 LTV 70% 규제'

한국경제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DSR 규제 세부 지침은 내달 확정되며,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

'생활 플랫폼' 꿈꾸는 은행들…'앱 분리 전략'도 시동

머니투데이

은행권, 향후 금융 서비스의 기반인 고객의 비금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banking 앱에 각종 '비금융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생활 플랫폼'으로의 변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모바일 banking 앱에 금융 외 부가 서비스를 엮고 있다. 주로 쇼핑·자동차 시세 제공 등 일상 생활 관련 비금융 서비스

윤석현 떠난 금감원…금융권 '숨통' 트이나

더팩트

윤석현 금감원장의 퇴임에 따른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전환으로 금융사에 대한 강경 기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취임 당시 2015년 중단됐던 종합검사를 3년 만에 다시 부활. 금감원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강조해 종합검사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험가입 100%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전자신문

디지털 판매채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와 대면하지 않고 100%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소 1회 이상 보험설계사와 만나야 하던 대면의무도 면제되고, 소비자와 보험설계사가 실시간 영상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집규준도 마련

한투 등 증권사 3곳, 거래소 배출권시장 조성자 참가

뉴시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은 17일부터 증권사 3개사의 시장조성자 참가를 통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한 증권사 3곳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 연내에는 증권사가 배출권시장에서 자기매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점차 확대

미래에셋증권, 카카오톡 '소셜커머스' 키운다…다음달 '붉은 낙타' 출범

뉴스토마토

미래에셋증권은 다음달 '미래에셋페이'와 '미래에셋페이'가 중계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붉은 낙타(Red Camel)'를 공식 출범하면서 소셜커머스 사업을 추진
단순 결제 서비스를 넘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안에 쇼핑을 접목시킨 확장된 플랫폼으로 PG(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

올해 개인 순매수 벌써 50조…작년 한해 순매수 추월

한겨레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4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50조9836억원. 불과 넉 달 반 만에 지난해 전체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 47조4907억원 추월
2월 8조원대, 3월 6조원대, 4월 5조원대 등으로 순매수 규모는 프그라들다가 코스피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이달에는 보름 만에 7조269억원을 순매수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